

卽身成佛의 大道 - 密敎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총지종보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 마음이 귀신되고
내 마음이 밝게되면
내 마음이 정신된다.

-종조법설집-

제 8 호

등록번호 마-2360호
등록일자 1995. 8. 29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082

발행인 안중호
편집인 이종석
인쇄인 김규석

대표 전화 (02)552-1080
발행인실 (02)562-8823
편집국 (02)508-8933
광고신청 (02)552-1081
구독신청 (02)552-1083
팩스 (02)552-1082

주요 기사

- 1면 · 정각사 헌공불사
- 2면 · 사설·지인사 헌공불사
- 3면 · 서동석 칼럼
- 4면 · 불교개설
- 5면 · 밀교와 현교
- 6면 · 자성학교
- 7면 · 밀인사 탐방
- 8면 · 관세음보살

행사 안내

- 정각사 헌공불사
 - 일 시 : 4월 17일 오후 2시
 - 장 소 : 정각사(부산)
- 지인사 헌공불사
 - 일 시 : 4월 22일 오후 2시
 - 장 소 : 지인사(인천)
- 춘기 강공회
 - 일 시 : 4월 23~26일
 - 장 소 : 부산 총지사
- 점동식
 - 일 시 : 5월 1일 8시 출발
 - 집결지 : 총지사

금강 법계궁 正覺寺 헌공

밀법홍포의 새로운 장 열어



▲동래벌에 위용을 드러낸 정각사.

남부의 중심도량 정각사(正覺寺)가 삼년여의 긴 공기를 마치고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내었다. 부산 교도들의 숙원이던 본종의 가장 큰 불사 중의 하나였던 정각사 신축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월로 모든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 정각사 본당에서 헌공불사를 올리게 되었다.

정각사는 총기 원년인 1972년 12월 27일 지금의 자리인 동래구 명륜동에 부산선교부로 개설된 후 총기 4년(1975년)부터 총지 서원당(總志

誓願堂)으로 불리우다가 총기 6년인 1977년 3월 23일 지금의 이름인 정각사로 개칭되었다.

정각사의 모태가 된 부산선교부는 초대 주교인 고(故) 정각원 대전수가 지금의 정각사 자리인 명륜동 자택을 종단에 보시하셔서 그 첫발을 내어디었다. 이후 정각원 대전수는 열반하기까지 10여년에 걸쳐 탁월한 법력으로 항구도시 부산에 밀교 증흥의 기틀을 다져 놓았고 마침내 오늘의 대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후 현 법장원장인 안효강 정사

가 통리원장으로 재직하던 총기 23년(1994년)에 신축이 추진되어 부속건물이 착공되고 이어 인접부지 매입과 함께 기존의 본당을 해체하고 본격적인 대불사가 착수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번에 신축된 본당은 연면적 1159평,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이며 부속건물은 연면적 555평, 지하2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다. 총 50억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보성건축이 설계를 하고 영동건설이 공사를 맡았으며 단행사의 해

정 정사가 현장 공감으로서 소임을 안수했다. 이들 관계자들에게는 기념식장에서 공로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17일 봉행되는 헌공불사에는 종령을 비롯한 종단내의 스승 및 전국의 교도대표가 참석하며 각 종단 대표 및 불교계 주요인사,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통리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불사를 계기로 부산지역의 교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형적발전과 함께 더욱 내실있는 종단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각사 헌공 발원문

대자대비 비로자나부처님이시여!
우러러 살피오니 부처님께서
법신이불로서 온 누리를 감싸시고
금강 도량 모든 불자에게
크나 큰 가호 주심을
저희들은 계수하여 지성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과 종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모아
비로자나궁전 정각사를 신축하여
이처럼 헌공불사를 올림에
삼가 부처님 전에 발원하옵니다.

금강대승의 밀법도량 정각사가
남해의 중심도량으로 우뚝 서
우리 종도들은 물론 온갖 유연 중생들에
성불의 그날까지
의지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도록
급어살피주시옵고
불퇴전의 용기와 자비광명을 주시옵소서.
오늘을 계기로 저희들도 더 크게 눈을 뜨고
열린 가슴으로 이웃을 감싸 안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충실하고
대승보살도를 펼치는 참불자가 되도록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정각사가 무궁발전하여
즉신성불의 대도인
최상승 밀법이 사해에 두루미쳐
어두운 중생을
밝음으로 향하게 하시고
한없는 안온과 평화를 내리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이땅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이 불사에 동참하신 모든 불자에게
보리심을 증장하여
성불에 이르게 하시옵고
밀법의 수승한 인연으로
모든 고통 번뇌에서
해탈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헌공 불사 공고

정각사·지인사 신축 헌공불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사 신축헌공불사

1. 일시 : 총기 26년 4월 17일(목) 오후 2시
2. 장소 : 부산 정각사 3층 서원당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7901

지인사 신축 헌공불사

1. 일시 : 총기 26년 4월 22일(화) 오후 2시
2. 장소 : 인천 지인사 2층 서원당
(인천시 부평구 십정 2동 578-1) ☎ (032)528-2742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 법공



사설

헌공불사에 붙여

영남지방에 전통밀교를 널리 펼칠 정각사가 완공되어 헌공불사를 올리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우리 총지중이 개종하면서 곧 이어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정각원스승의 자택을 보시받아 '부산선교부'라 이름 지은 것이 현재의 정각사다. 따라서 정각사는 우리 총지중의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도량이다.

정각사는 1977년 10월에 서울의 본산 총지사보다 3년이나 앞서 현대식 건물로 새롭게 단장하여 수행과 전법에 중점 역할을 맡았다. 이곳에서 배출된 승직자와 인제들은 우리 종단에 없어서는 안될 동량으로서 전국의 사원과 생활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초대 전각원 대전수의 원력과 그후 이곳을 맡은 여러 주교들의 모범적인 수행과 생활로 종단의 발전이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총지중의 '승보도량'이라 불리우는 것은 이들 스승과 대중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행의 성과이다. 정각사의 신도를 역시 우리 종단은 물론이고 현교와 밀교를 각론하고 참으로 훌륭하게 신실한 불자로서의 맡은 바 모든 모범을 보이고 있다. 자신을 절차탁마하는 수행과 동시에 환경운동, 사회 복지사업, 각종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활동 등 실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바로 이런 분들의 모범적인 생활은 그리 길지 않은 우리 종단이 이만큼 발전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3년간의 불사를 마치고 부속건물과 함께 동래벌에 우뚝 선 정각사는 그간 총지중의 역사를 걸머진 도량답게 21세기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지하는 사원이 되리라 확신한다. 더불어 이달 22일 헌공불

사를 하여 경인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지인사는 정각사와 함께 혼탁한 사회에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 고통을 받는 중생의 귀의처가 될 것이다.

정각사와 지인사 등의 헌공불사를 계기로 우리 불제자들은 다시금 이 시대에 있어 진정 할 일이 무엇인가를 되새겨야 한다. 단순히 전법의 도량을 세웠다는 성취감보다는 예전 부처님 재세시에 부처님께 정사를 지어 바쳤던 제자들의 지극한 정성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뚝선 건물에 만족함을 가지게 된다면 부처님이 가장 경계하신 '물욕'에 스스로 매이게 된다. 우리가 지은 건물은 어디까지나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건물은 언젠가 때가 되면 낡고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다시 지어야 할 무상한 물건이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 때가 되면 허물어지기 보다는 더욱 대중의 빛으로, 어둠에 길을 인도하는 빛으로 더욱 존귀하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금강같이 단단하고 불변하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20세기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두 위기를 맞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치 경제의 파탄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상호간의 불신과 냉대 그리고 적대심으로 가득하다. 이런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개개인의 정신적 공황과 혼돈은 과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할지 회의하게 하고 있다. 헌공불사를 계기로 우리 자신이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기어이 중생계의 고통을 소멸하고 남이 다 성불한 후에야 내가 성불한다는 굳센 서원을 높히 세워 사회와 개인의 삶을 혼탁의 나라에서 건져내는 불제자가 되도록 하자.

정법을 선양하는 일

민족의 보금자리인 한반도에 흐르는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절대절망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 위기가 종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북반부에서는 수년째 계속된 자연재해와 정치적 과제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금년 내 수백만이 굶어 죽을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국제사회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려오는 외신과 북한을 방문한 국제기구의 인사와 국내 언론사의 특파원 보고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하루 1백그램도 안되는 양식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런 열악한 식량사정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의 성장이 멈춰진 상태이며 수개월 내에 식량 사정이 다소나마 개선되지 않는다면 모두 아사할지 모른다고 한다. 심한 경우 갓난 아기를 강물에 띄워보내 흑사라도 북한보다 좀 살기 좋은 중국사람에게 발견되기를 기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과 달리 야가들은 대개 물에 빠져 죽고 있다고 한다.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믿기지 않는다.

한반도의 남반부에는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가 이미 오래 전에 해결되었다. 하지만 가난을 해결했다는 현상이 눈이 멀어 내일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했고 계획적인 설계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물질적 풍요의 배후에 도사린 인성의 파괴를 보지 못한 결과 사회적 파산을 맞게 되었다. 정치가 부패해대로 부패하고 경제는 나라로 떨어졌다. 실업자가 즐비하고 외국에 빌린 돈과 이자가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 사회가 온통 불안한 까닭에 사람들의 심성은 더욱 악화되어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고 격분한다.

공직사회의 기강은 무너지고 흉악범이 날치니 사람에 대한 믿음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해치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신과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 내일에 대한 희망찬 설계는 고사하고 당장 안정된 하루를 걱정하게 되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개악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불기 시작한 격랑의 화오리는 최근 이 나라에서 손 꼽히는 재벌이 연쇄부도하고 그 부도의 배후에 도사린 상상을 초월한 부정대출과 정치협잡이 밝혀져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 역시 이들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정치 한다는 사람들이 진정한 책임을 통감하고 하심의 자세로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소수 정치인들의 권력에 대한 교만과 욕심으로 인한 고통을 국민이 인내하기에는 정도가 지나치고 있다.

아울러 지금의 난국을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방관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열반경에 이르길 "만일 정법을 해치는 자가 있다면 정원의" 독초를 뽑듯 절박하라. 만일 그자를 보고도 방관한다면 그 역시 불제자가 아니다"라고 단단히 경계하였다. 지금 민족과 사회의 위기를 맞아 우리 불제자들은 팔건어부치고 나서야 한다. 북녘 동포의 아픔에 동사섭하는 동포애가 절실하며 우리의 보살행으로 민족을 돌지 않는다면 후일 통일이 되어도 텅텅하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파멸으로 흐르고 있는 국정운영을 바로 잡는 실천도 필요하다. 부패한 정치를 청정한 정치로 바꾸는 일은 곧 정법선양과 다르지 않다.

지인사 헌공불사

경인교구의 중심도량으로 받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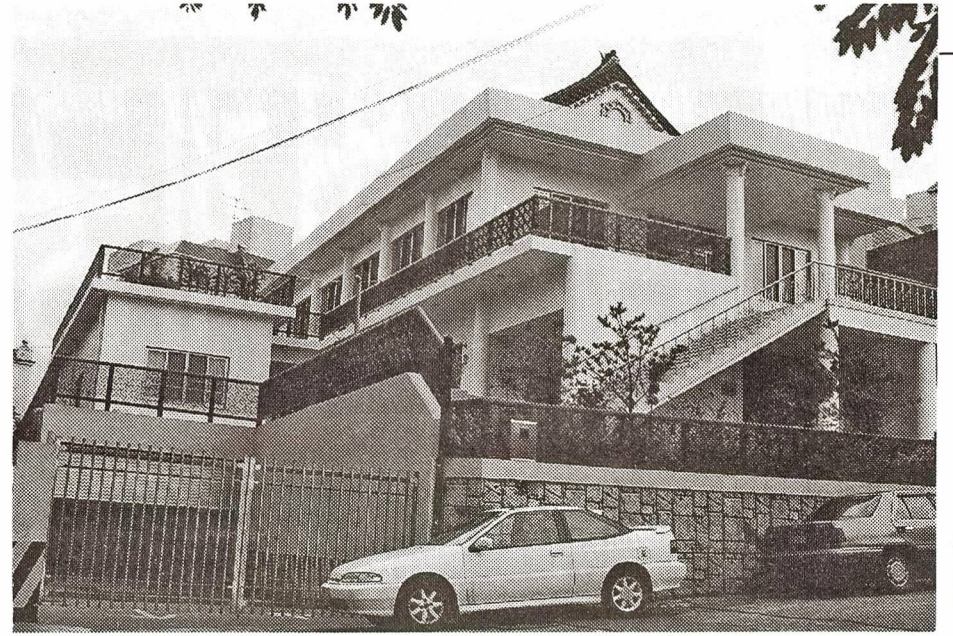


주요 청암 정사



임상혜 전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지인사(智仁寺, 주교 청암)가 단장을 마치고 오는 22일 신축헌공불사를 봉행한다. 지인사는 총기 2년(1973년) 12월 20일 인천시 북구 부평동에 부평선교부로 개설된 후 (초대주교 정혜원 전수) 총기 4년 임정서원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총기 5년(1976년) 지인사로 정식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인 교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할 지인사 전경

지인사는 지난 83년 신축을 위해 대지를 마련했으나 공사가 미루어져 옥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더불어 신정화활동도 더욱 활기를 띠어 달하는 2층 건물이다. 이번 불

사를 계기로 그동안 경인교구의 중대지를 마련했으나 공사가 미루어져 옥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더불어 신정화활동도 더욱 활기를 띠어 달하는 2층 건물이다. 이번 불

헌공불사에는 종령을 비롯한 종단 간부와 전국의 승직자 및 교도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기원 점등식

군장병에 밀교 소개, 위문품 전달

경인교구에서는 5월 1일 본 종단과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화천의 00사단을 방문하여 통일기원 점등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나라의 안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법회와 함께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위문품과 금일봉이 전달될 것이라고 한다.

본종은 지난 해부터 00사단과 결연을 맺은 이래 북한을 바라보는 눈선에 이곳 불자들의 숙원이던 점등철탑을 세웠으며 합창단과 위문단이 방문하여 사단 장병들과 우의를 다졌다. 종단에서는 이와 관련해 군법당 건립과 정기 법회를 통한 포교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군장병들에게 올바른 밀교의 소개와 더불어 불교관의 확립으로 정신력 강화는 물론



스님들의 점등식 장면

전역후의 사회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인사 학생회 환영법회

창립 20년째를 맞는 포항 수인사

학생회 신입생 환영 법회가 지난 4월 6일 수인사 서원당에서 열렸다.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이 모임에서 수인사 주교인 원봉 대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총지중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힘인 학생들이 우리 종단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짊어지고 나갈 커다란 일군으로 자라달라고 당부했으며 학생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동지고등학교와 동지여자상업고등학교생이 주를 이룬 이번 학생회의 특징은 신입생보다는 재학생들의 편익이 늘어 난 것에 있다. 기존의 한 회원의 말에 의하면 신입생 환영법회라기보다는 신입회원

환영 법회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재학생 편입회원보다 신입생들이 적었는데 그 까닭은 밀교 종단을 잘못 이해한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의 이해부족 및 당해사원의 홍보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학생회는 학기중에 점차적인 포교를 할 생각이 라고 하는데 편입생이 많은 까닭도 학교 안에서 동료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종교적 관심이 생기기 쉬우며 이것이 학생회 가입으로까지 이어 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동지 고등학교 내에서는 학생회 선배인 김동진 선생을 학교 내 지도교사로 초빙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수인사 학생회는 이번의 법회를 기점으로 그동안 운영상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여 개선해 나가고 수평 중심의 반연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한다. 학생회 지도교사는 지난해 졸업한 김태완군으로 그동안의 학생회 활동을 통하여 쌓은 경험과 본인의 열정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불사법요집 개정

불사법요연구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불사법요집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기존의 불사법요집이 불사 및 의식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아 보완과 통일을 위해 여러차례 심의를 거쳐 법장원에서 이를 취합한 후 춘기 강공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춘계 정기강공회

교화 활성화 방안연구 등

춘계정기강공회가 23일부터 25일 까지 개최된다. 이번 강공회는 종단 내의 여러 가지 행사와 부처님 오신 날 준비등으로 일정을 간략하게 잡았는데 나라의 위기상황에 대한 승직자의 정신자세 등을 주제로 한 중

령의 특강과 내부 연구원의 교리 강좌,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재단 임원 및 총회위원 교체 및 선출, 전년도 결산 심의 및 교화활성화에 대한 종단의 주요 현안 심의가 있을 예정이 다.

正覺寺·智仁寺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회 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수석부회장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 부 회 장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 부 회 장 대한불교 진각종 총무원장
- 부 회 장 대한불교 조계종 초심호계원장
- 부 회 장 중앙승가대학 총장
- 부 회 장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 이 사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 이 사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장
- 이 사 대한불교 원용종 총무원장
- 이 사 불교 총지중 총무원장
- 이 사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 이 사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 이 사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 이 사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 송 월 주
- 홍 인 곡
- 전 운 덕
- 김 락 혜
- 김 월 서
- 방 지 하
- 이 흥 파
- 김 대 호
- 정 혜 일
- 송 보 인
- 이 보 공
- 정 법 윤
- 송 무 진
- 전 남 정
- 김 혜 정

- 이 사 대한불교 진언종 총무원장
- 이 사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 이 사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 이 사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 이 사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 이 사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 이 사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 이 사 대한불교 일봉선교종종 총무원장
- 이 사 보국불교 염불종 총무원장
- 이 사 천화 불교 교정
- 이 사 대한불교 미타종 총무원장
- 이 사 대한불교 열반종 총무원장
- 이 사 한국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 이 사 대한불교 미륵종 중정

- 손 금 광
- 이 법 덕
- 이 혜 우
- 이 대 화
- 윤 지 명
- 신 혜 안
- 윤 일 오
- 김 무 찰
- 이 청 봉
- 이 희 수
- 권 흥
- 김 해 곡
- 김 광 태
- 김 우 당

사단 법인 **한국 불교 종 단 협 의 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9
TEL 732-4885/FAX 737-7872

불교 소비자 보호위 지부결성 착수

지난해 7월 본 종단의 분산 총지 사 법장원 2층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활동에 들어간 종단협 소비자보호위가 최근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초에는 서울에 주소를 둔 사찰 및 포교당 등 1천4백군데 이상에 공문을 발송하여 종단협 소비자보호위의 활동 홍보와 동참 협조를 구하였다. 특히 사찰에 직접 '피해자접수창구 개설'을 통한 협조를 당부하였는데 각 지역에 있는 사찰이 접수창구를 개설한다면 소비자보호운동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종단협에 소속된 각 종단의 중앙행정기구에도 공문을 보내 불교소비자보호운동이 활성화되도록 각 종단 차원의 협조를 구하였다. 현재 재가까지 적극적인 의사를 보내온 사찰은 극히 저조한 형편이지만 차츰 홍보를 통해 많은 사찰과 대중의 동참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공문이 발송된 이후 몇몇 사찰에서 관공서 또는 타 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 주로 법적 처리로만이 해결 가능한 사례를 상담하는 전화가 있었다. 따라서 소비 위에서는 자문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비록 소비자피해구제가 아니더라도 법률구조 차원에 도움도 주도록 하고 있다.

자문변호인단은 불자법조인으로 구성하였는데 현재 11명으로써 민·형사상의 어떤 법적 문제에도 자문과 실제 법률서비스가 가능하다.

한편, 가능한 지역 대도시에서도 소비위의 지부가 결성되어 전국적 불교소비자보호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부산과 대전이 우선적으로 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4월 17일 부산 정각사 헌공불사를 계기로 이 지역에서 지부결성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척될 것이며, 대전에서는 이곳에 본산을 두고 있는 염불종(총

무원장 이청봉스님)이 중심이 되어 지부 결성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여타 도시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부산과 대전의 성과 여하에 따라 속속 추진되리라 확신한다.

교계최초 상설 재활용시장 개설

본 종단이 전담하고 있는 종단협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본부장:법정스님)」, 현대불교신문사와 함께 4월 10일부터 '알뜰 재활용시장'을 개설하였다. 불교소비 위가 지난 3월 중순에 교계 기관과 단체에 제안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이 재활용시장은 여타 종교권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건강한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우리 불교계에서는 상시적인 사업으로 정착되지 못하였던 관이 되어 상시적으로 개설하는 이 시장은 불제자들의 생활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알뜰재활용시장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들은 일단 전화상담을 통한 물품의 증계에 주력하면서 총지종의 본산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총지사 마당 한쪽에 상설가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개점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될 예정인데 누구든 이곳에 기증할 물건을 갖고 올 수 있으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상설가게를 방문하여도 된다. 시장에 내놓을 물품에는 특별한 제한

이 없지만 이불이나 가구류, 소파류, 신발이나 양말, 아동도서를 제외한 일반도서류 등은 받지 않기로 하였다. 자칫 쓰레기처리장이 될 우려가



지난해 10월경 열린 주관 불교인들이 옷을 기부하는 장면.

기자수첩

한보사건의 청문회를 보면서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는 것이라 마땅치 않을 것이다.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청문회에 불려나온 죄인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질문하는 수준도 수준이러니와 대답하는 증인도 뻔뻔하기는 여느 파렴치한 못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질문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을 국민의 대표라고 앞장세워 놓았으니 그 국민은 또 얼마나 한심한가에 생각이 미치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스스로가 더 부끄러워진다. 질문자가 그러하니 증인들이 불려나와서도 국민의 열망에 의해 열린 청문회를 우습게 보고 국회를 우습게 보고 사치만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질문자까지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이

며 추태를 보인 것인데 우리가 불패에는 그야말로 벼락은 개가 똥똥은 개 나무라는 격인데도 당사자들은 패 진지하다. 이 한심한 자세들이 불교적인 눈으로 보면 자업자득인 것이다. 스스로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면 거기에 권위가 있을 수가 없다. 나라의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거짓말이 당연시되는 사회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다반사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쳐다보는 우리까지도 그 여과가 미쳐 어느덧 거짓말쯤이야 우습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된 것 같다. 이러한 사회풍토에서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살아가야 할 지 난감해진다. 미국은 정치인이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그날로 정치생명은 거의 끝이난다고 한다. 여러 가지 타락의 조짐속에서도 미국

이라는 나라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더 잘하는 것 같다.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여... 어쩌고 하면서 등장일이 어두운 줄을 몰랐던 그 사람은 처치

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냉대를 하는 국민 의식이 있어야겠다. 우리는 건강증이 심한 건지 너그러워 서 그런 건지 거짓말한 작자들을 다시 기용하고 선출해 준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골호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바른 판단으로 악을 응징하고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이를 알아야 한다. 부동명왕의 무서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한 사람의 거짓말은 자신의 파멸 뿐 아니라 조직전체의 불신감을 초래하고 나라까지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처님이 망어를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의 하나로 꼽으신 것도 다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적해 주라. 그것이 그 사람의 죄를 덜어주는 것이며 주위 사람을 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길이다.

또 이런 사람도 있다. 수학에는 '피타고라스정' 처럼 이름 붙여진 정의가 여럿 있는데 이 가운데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무슨 정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정의를 풀어보려고 평생 바치는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정의의 풀이 단락을 인류사에 영원히 남을 수학자가 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또 이런 사람도 있다. 어떤 물체에 한 번 충격을 주면 강제로 세우지 않는 한 영원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려는 사람이다. 이른바 '무한동력장치'라고 하는데 이 장치의 발명에 성공하면 연료 없이 동력을 일으킬 수 있게 되므로 발명가는 페넌을 벌게 될 것이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여럿 있다고 한다.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 성공했다는 소식이 없다. 비슷한 경우가 되는 데, 기름값이 비싸고 오래지 않아 고갈이 될 것임에 아예 순수한 물로 가는 자동차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제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어디 쉬운 일인가. 잊지도 않은 보물섬을 찾아 바다를 헤매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너무 가혹한 말인가.

20세기 들어와서 굳이 '연금술'을 연구하지 않아도 황금을 만드는 기술을 발명한 것과 진배없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이었던 1, 2차세계대전을 치루면서 페니실린이 발명되었는데 이 발명으로 인류의 최대질병으로 꼽히던 염증이 그 지위를 잃었다. 물론 발명가는 황금더미에 앉았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의 유명한 제약회

서동석 칼럼



사들은 페니실린의 영광을 더욱 발전시켜 인류를 괴롭혀 왔던 불치병이나 급성전염병의 치료약을 개발하고 있다. 의신을 통해 들어오는 이들 제약회사나 연구소의 성과들은 실로 인류의 미래에 병의 고통을 없앨 것 같다는 믿음을 준다. 이들이 개발된 의약품들을 실험하기 위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도 잊지 않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가운데 보통사람이 보기에는 황당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확신을 갖고 보통사람이 하지 않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 왔다. 더러 이런 이들을 칭찬하며 추켜 세우기도 하는데 개중에는 진짜 '기이'한 행동으로 인류사에 혁혁한 기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황당한 시도 그 자체로 그치고 마는 경우도 있다.

이들처럼 황금을 어렵게 찾아 나서지 않고 집안에서 만들 수만 있다면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황금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 황금은 모든 가치나 가격의 척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인류사를 뒤적여 보면 이런 황당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려고 평생을 바친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연금술사'라고 하는데 약 7세기 전부터 몇 세기 동안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 당시 유럽인들이 바다를 주름잡고 또 이런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 각 대륙이 서로 연결되는 등 상업자본의 역할이 비등하여 지면서 '연금술'은 더욱 사람들을 유혹하였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생명의 기술, 기술의 생명

또 이런 사람도 있다. 수학에는 '피타고라스정' 처럼 이름 붙여진 정의가 여럿 있는데 이 가운데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무슨 정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정의를 풀어보려고 평생 바치는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정의의 풀이 단락을 인류사에 영원히 남을 수학자가 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또 이런 사람도 있다. 어떤 물체에 한 번 충격을 주면 강제로 세우지 않는 한 영원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려는 사람이다. 이른바 '무한동력장치'라고 하는데 이 장치의 발명에 성공하면 연료 없이 동력을 일으킬 수 있게 되므로 발명가는 페넌을 벌게 될 것이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여럿 있다고 한다.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 성공했다는 소식이 없다. 비슷한 경우가 되는 데, 기름값이 비싸고 오래지 않아 고갈이 될 것임에 아예 순수한 물로 가는 자동차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제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어디 쉬운 일인가. 잊지도 않은 보물섬을 찾아 바다를 헤매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너무 가혹한 말인가.

20세기 들어와서 굳이 '연금술'을 연구하지 않아도 황금을 만드는 기술을 발명한 것과 진배없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이었던 1, 2차세계대전을 치루면서 페니실린이 발명되었는데 이 발명으로 인류의 최대질병으로 꼽히던 염증이 그 지위를 잃었다. 물론 발명가는 황금더미에 앉았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의 유명한 제약회

인류가 겪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의 개발은 20세기 중엽 이후 경악할 만큼 놀라운 속도로 예방과 치료의 정도를 넘어 '새로운 생명'을 속속 내놓기 위해 이르렀다. 이것을 생명과학이라고 이름을 달았다. 마치 고열나무를 다른 나무와 접붙혀 먹음직한 감이 주렁주렁 달리게 하듯 생명과학은 상상을 초월하는 '작품'을 만들어 냈다. '수퍼감자'라느니 호랑이와 사자를 짝지어 '라이거'가 나왔다느니, 과장해서 세파트만한 '수퍼쥐'의 탄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어쩌면 마음만 먹으면 병아리를 낳는 닭도 나올 수 있고 날개 달린 돼지도 가능할지 모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페니실린의 남용으로 염증이 오려면 더 극성을 부리는 것처럼 생명과학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연금술'은 그래도 낭만적이었지만 이제 황금을 만드는 것 보다 더 큰돈을 보장하는 생명공학의 성과는 과연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회의론을 갖게 한다.

생명공학의 발전은 마침내 '생명복제'의 실현을 보게 하였다. 지구상의 생명은 창조주로부터 나왔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일제히 생명복제에 대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는 사악한 짓이라고 한다. 하긴 그네들 종교의 존립근거가 없어지게 되니 되니 극구 반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속에 있

는 세포를 이용하여 본래의 모습을 복제하는 기술에 이르러서는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뭔가 섬뜩한 감을 지을 수 있다.

나는 과학의 발전을 거부하지 않는다. 과학은 사회적 생산력을 높이며 나아가 진보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인간의 인식을 고도화하며 궁극적으로 미신적 세계관을 교정하게 한다. 그러나 과학이던 기술이던간에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배제된 발전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생명복제가 나를 섬적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배제된 생명을 무수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어떤 필요에 의해 생명을 만들고 기계 부품처럼 적당히 쓰고 나서 없앨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 부모의 은혜는 다른데 있지 않다. 당신들이 고통을 참으며 나를 낳아주셨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며 키우신 사랑이 바다보다 크고 하늘보다 높아서이다. 「부모은중경」은 중생의 바른 도리가 사랑과 이에 대한 보답, 즉 효에 있음을 강조하고 강조한다. 인간이 다른 짐승과 구별되는 것 역시 여기에 있다. 생명복제가 그저 인간을 보다 오래 살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제 명대로 살더라도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한다면 적극 환영하겠다. 하지만 자본의 이익을 위해 모든 기술이 지배 당하는 사회에서 그를 기대하기란 '모래를 켜 밥을 구하기'와 같이 어리석다. 사랑이 담긴 생명공학, 그것의 전제는 자본의 굴레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 낡은 사회를 개조하는 '연금술'을 발명했다는 소식은 언제나 들릴까. (전 민불련 의장)

정각사·지인사 헌공을 봉축합니다



총지(總持)는 오직 묘한 약이요
하늘의 감로와 또한 같아서
미혹된 병을 능히 고치니
먹는자 항상 안락하리라

— 반야경 —

불교총지종 신정회

지상설법

업장 소멸의 길

탐·진·치가 업장형성의 원인



법정

화음사 주교

업장이란 마음의 막힘이다.

마음이 형체도 없는 장애물에 가려져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듣지 못하여 일을 망치고 하는 일마다 손해를 보며 죽음을 초초하기도 한다.

우리가 눈 앞의 가로 막히면 보지 못하며 귀가 막히면 듣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 마음도 가리운 것이 있으면 자연히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눈 앞의 관자로 가려지고 귀는 속으로 막아 지지만 마음은 무엇이 있어서 가려 막는 것일까?

눈 앞의 관자나 귀의 속은 치워 버리면 곧 볼 수도 있고 들을 수가 있지만 마음의 장벽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우기가 어려운 것이다.

마음을 가로 막는 장벽의 요소는 다음의 세가지로 볼 수가 있다.

첫째, 탐·진·치 삼독업이다. 탐심이 한 번 마음을 가로 막으면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예의도 이웃도 모른다. 이 욕심이 한 번 막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되고 남의 말도 들리지 않는다. 바르게 가르치고 충고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업장에 막혀 삼악도에 빠져드는 것이다. 다음이 진심이다. 별것도 아닌 것이 마음에 거슬리고 진심이 나서 화

를 참지 못하고 일을 글치거나 상대에게 큰 화를 입혀서 남패를 당하게 된다. 진심이 본 마음을 가려서 받는 고통이다.

다음은 치심이다. 어리석음에서 오는 장벽이다. 어리석음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혀 무시하고 어리석어서 시비 이해를 구분할 수 없는 장벽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은 알아서 자기가 아는 것에 매여 그 이상의 것이나 그 밖의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장벽에 막혀 옳은

은 아무리 잘못된 일이 있어도 잘못으로 보이지 않으며 나쁜 허물도 좋게 보인다.

하지만 미운 사람이나 배타적인 사람의 잘한 일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허물로 보고 실수나 잘못된 일만이 눈에 발견되어 갈수록 죄업을 두렵게 하는 장벽이다. 그래서 옛말씀에 "좋아하되 그 허물을 알아야 하고 미운 사람도 지금 그가 지은 착한 바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셋째, 속세업이다.



△전국에서 강의실내

것도 믿지 않고 좋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자칭 학식도 많고 말도 잘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외의 것은 아무리 좋은 진리나 방편도 부정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또 어리석은 마음은 자기의 과실은 알지 못하며 자기 고집에 매여 좋은 법문을 들어도 회의를 느끼지 못하며 인과응보의 진리를 믿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말이나 꼭 해야 할 일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둘째, 차별심이다. 이 업은 사람과 마음이 가로막아 생기는 장벽이다. 나에게 아무하고 굴절거리는 사람

전세업에 가려서 정당하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업장이다.

이 업은 금생에 지은 것이 아니라 전생에 지은 것이 금생에 넘어 온 것이다. 속세의 업장이 가리게 되면 눈에 보이지를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러한 모든 업장은 꾸준히 닦아 가면 비록 지금은 괴롭고 잘 안되지만 행동 하나 마음 하나가 그대로 선업을 이루어 수행자의 인격을 이루어 언젠가는 업장을 소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도를 생각하고 도를 밟고 도를 행하라"고 가르치셨다.

불교상식

밀교의 법구-금강저·금강령



▲오고저

밀교에서는 여러 가지 의식과 수법을 행하며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깨달음에 도달하고 바라는 바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의식과 수법의 실천에 쓰이는 도구를 법구(法具)라 하며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도구와는 엄밀히 구분되며 신성시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금강저와 금강령이다.

금강저(金剛杵: Vajra)는 제석천을 비롯한 제신(諸神), 역사(力士) 등이 가졌다는 고대 인도의 무기로서 단단하여 어떠한 것이라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금강(金剛)이라 한다. 밀교에서는 번뇌와 마군(魔群)을 쳐부수는 보리심(菩提心)의 상징으로 사용한

다.

원래는 끝이 뾰족했으나 밀교의 법구로 사용되고부터 그 상징성만 나타내게 되었다. 끝이 하나인 것을 독고(獨), 세 개로 된 것을 삼고(三), 다섯 개로 된 것을 오고(五)라 하는데 각각 법계(法界)·삼밀(三密)·삼신(三身)·오지(五智)·오불(五佛) 등을 상징한다.

금강령(金剛鈴)은 제존(諸尊)을 일깨우거나 기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는 요령(搖鈴)으로서 흔히 금강저의 끝에 달려 있으며 금강저의 모양에 따라 독고령, 삼고령, 오고령 등으로 불리어 진다.

불교개설(1)

불교발생 이전의 인도사상

대현 (법장원 연구원)

불교는 결코 언어문자가 아니며, 바로 그대로 실천이라고들 한다. 사실 불교만이 아니라, 일체 만법이 그대로 언어문자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 목마를 때 '말'하고 말한다고 해서 갈증이 가시는 것은 아니며, 종이에 '불'이라고 글씨를 아무리 잘 써봐도 종이 가 탄다거나 온기가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교는 언어문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나 피상적인 뜻이 아닌 그 말이 지닌 깊은 의미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실천 실천하지만 그 실천할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올바른 모르는 것은 올바로 실천할 수가 없다.

실천을 말하면서 심중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실천만을 얘기한다면, 불자들이 무엇이 불교인지 그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도 어렵거나 불교가 다른 종교나 철학과 다른 점

을 알 수도 없게되고 그 와중에서 별별 지적 사기꾼이나 영터들이 부처님 말씀을 빙자하여 쉽게 호의 호시 하면서 살아갈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진정한 불교나 불교도는 점점 사라져가고 '附佛法之外道'들만이 불교계에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교계는 지성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 후대의 불자들이 진정한 불교회복운동을 펼치기에도 너무나 험겨운 형편으로

치는 그런 식의 불교로서는 여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불교에는 불교 고유의 내용을 가진 좋은 법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세계의 석학들은 미래의 인류의 문제는 불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그런데 불교의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하는데는 언어문자만 방법도 없다. 만약 이 세상에 불교의 경전이나

도입구까지 밖에는 인도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게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며, 교학을 통하면 적어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불교를 오히려 게 된다거나, 길지 않은 인생을 헛되이 방황하는 일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물어봐야 거짓말 아니면 엉뚱한 대답이 나올수 밖에 없다. 학벌이 높은 세상에 불교를 전파하려고 한다면 무언가를 제대로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이해에서

사태가 악화되어 버릴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빈약한 교리를 가진 다른 종교들이 이 기회를 틈타 불교의 풍부하고도 좋은 교리들을 교묘히 자기들의 교리로 바꿔치기 해 나갈 때 옥석의 구분은 힘들어지고, 어렵고 하기 싫고 자기 사을 올바르게 파악하기도 어렵거나 불교가 다른 종교나 철학과 다른 점

논서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해보라. 또 기억도 없이 어떤 부처님을 기다려야 하고 그 분의 말씀을 기록해야 할 분들을 기다려야 하고 그 의미 내용을 전달해 줄 분들을 기다려야 하고... 생각만해도 아찔하지 않은가? 그리고 보면 언어문자는 정말 고마운 것이다. 물론 언어문자를 통한 불교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불교를 좋아하고 믿는 사람들은 많으나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적은것 같다.

믿지만 모를때 남에게 떳떳하게 불자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

이 난을 통해서 불교적 사고의 틀이 잡히고 그 방향이 바로 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불교의 탄생으로 사상계의 혁명이

올바른 불교의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인도에서 불교가 전개되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불교가 일어나기 이전 인도에는 인도 문화를 형성한 주된 인종인 아리아인이 갠지스강의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목축과 농경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들이 힌두쿠시안맥을 넘어 인도에 침입한 것은 기원전 1500년 경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인도에는 선주민족으로서 드라비다 족이나 문다족 등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드라비다족은 인구도 많았으며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아인에게 정복되어 노예계급으로서 그들의 사회질서 속에 흡수되어버린 후에도 인도문화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드라비다족의 종교사상 중에서 여신이나 뱀신, 그리고 수목숭배 등은 후세의 힌두교 성립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인도스강 유역에는 아리아인이 거주하면서 이른바 인도스 문명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 문명은 기원전 2천년을 전후 한 1천년 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유파된

장소로서는 인더스강 유역의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는 두 도시가 유명하다. 이 곳에서 발굴된 출토품에 의해서 이 민족은 청동기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종교관계의 출토품 중에는 후세의 힌두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많다.

북서 인도에 침입한 아리아인은 인더스강 상류의 판잡지방에 정착하여 (리그베다)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를 탄생시켰다. 인도에 있어 철학적 사유의 싹은 인도의 가장 오래된 문헌인 이 (리그베다)에 나타나 있다. (리그베다)의 성립년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기원전 1200년을 중심으로 작성,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의 내용은 주로 하늘, 비, 바람, 우뢰 및 기타의 자연계의 힘을 신으로 숭배하는 다신교(多神教)였다. 그 후 기원전 1천년 경부터 아리아인은 다시 동쪽으로 진출하여 아무나 강과 갠지스강 하류의 비옥한 토지를 점령했다. 이 곳은 토질이 매우 비옥해서 항상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하기 이전에 다른 민족이 거주하면서 이른바 인도스 문명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 문명은 기원전 2천년을 전후 한 1천년 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유파된

개 이 시대에 확립되었다. (리그베다)에 이어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의 3베다는 기원전 1천년 경까지 성립이 계속되었고 이어서 제식의 방법을 설명하는 (브라흐마나)는 기원전 8백년경, 그리고 철학적 사상의 성과인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5백년 경에 성립되어 인도사상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이 시대에 아리아인은 이 곳에서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농경과 목축을 위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상공업도 상당히 발달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립되고 폐쇄적인 경제생활을 하면서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져 신

하지 않았다.

종교면에서는 베다 성전을 받들고, 그들이 규정한 제사를 행하며 신들에게 동식물의 희생을 바쳤다. 아리아인은 그 뒤 점차로 동방으로 진출하여, 기원전 6세기부터 5세기 경에 이르러 갠지스 강 중류의 여러지역에 머물러 그의 힘은 갠지스 강의 하류에 까지도 미치게 되었다. 그들은 발전 함에 따라 부족간의 대립이나 통합이 생기고 점차 크고 작은 부족이 통합되어 독재권을 가진 왕을 지도자로 받드는 왕국으로 발전해 갔다. 국토가 확대됨에 따라 왕국의 세력은 강화되고 원주민과의 접촉이나 문화적 혼합은 한층 심화되어, 서방의 바라문 중심의 문화와는 다른 왕족 중심의 사상과 문화가 발생되었다.

기원전 5백년 경부터 기원후 120년에 이르는 약 7백년 동안 반 베다적 자유사상이 일어나는데 불교의 개조인 고오타마가 출현한 것도 바로 이 시대였다. 이후 특히 불교는 종교, 사상계의 주류가 되어 베다문화의 기반을 붕괴시켰으며, 그래서 바라문교는 토착의 민간신앙 등을 흡수하여 힌두교로 변모해갈 수 밖에 없었다. 이 시대의 일반적 특징은 철학적 사유는 매우 활발 하였으나, 아직 제대론 체계가 구축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겠다.

자료수집 / 李哲敦(동대도서관 열람과장) 해 제 / 金光植(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

韓國近現代 佛敎資料全集

본서는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1876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각종 불교잡지 26종과 新聞類, 文件, 圖書類, 解放 前後 관계자료 및 淨化 관계자료 등 귀중한 불교자료들을 모아 영인한 것이다.

본 자료 총서는 동국대 도서관의 李哲敦 선생님이 수집·정리하였고, 근현대 불교사를 연구하고 있는 金光植 선생님이 각 자료에 대하여 일일이 해제를 썼다. 따라서 본서는 한국 근현대 불교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총망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록 자료>

佛敎 / 新佛敎 / 朝鮮佛敎 / 佛敎時報 / 慶北佛敎 / 朝鮮佛敎叢報 / 朝鮮佛敎月報 / 佛敎振興會月報 / 海東佛報 / 朝鮮佛敎界 / 東洋佛敎 / 一光 / 金剛杵 / 金剛山 / 鷲山寶林 / 鷲山 / 禪苑 / 惟心 / 佛日 / 平凡 / 弘法友 / 潮音 / 新生 / 佛敎 / 鹿苑 / 淨土宗韓國開教誌 / 朝鮮開教五十年誌 / 朝鮮國布敎日誌 / 海外開教條規 朝鮮佛敎革新會 網規 / 朝鮮佛敎中央敎務院 評議員總會會議錄 / 朝鮮佛敎大會 記要 / 解放空問期의 佛敎界 新聞 / 淨化 關係자료 등 수십 종이다.

총69권 신국판 양장 / 각권 500쪽 가량 / 값 1,980,000원 / 100질 한정판 / 별권 해제

民族社版 新修大藏經 예약안내

大新正循 大藏經

佛敎의 重要 經典을 集大成한 <新修大藏經>을 재간행하기 위하여 예약을 받습니다. 2년 전 <民族社版> 新修大藏經이 품질된 후, 지금까지 再刊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종이, 인쇄, 제본 등에서 그 어느 출판사보다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역시 깨끗하고 탄탄한 대장경을 만들 작정입니다. 많은 예약을 바랍니다.

1. 新修大藏經 第1卷~第55卷, 목록 1권, 총 56권
2. 예약가 : 1,350,000원(계액금 350,000원, 출간 후 가격 미정)
3. 출간일 : 1997년 6월 30일 1차 30권 · 11월 30일 2차 26권
4. 46배판 각권 평균 1,000페이지, 하드커바 양장
5. 영구보존용지(코트지) 사용

(예약이 순조로울 시에는 간행일자를 당길 계획입니다.)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우체국 010041-0275878 윤재승 농협 053-02-109450 윤재승

民族社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無比스님 懸吐 科目

華嚴經

(無比스님 : 현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난해 <한글 화엄경>(전12권)을 번역하였고, 또 현재 조계종 승가대학원의 원장이신無比스님께서 오랜 精進 끝에 80권본 원문 華嚴經(懸吐科目)을 간행하여 각 강원에서 화엄경을 보는 데 매우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각 강원에서 방대한 화엄경을 볼 적에는 개별적으로 일일이 토를 달아야만 했고 또 따도 제각기 달라서 불편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제목과 단락이 구분되어 있어서(科目) 내용 파악도 매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편집체재나 활자, 제본도 이상적으로 되어서 이 책을 본 분들은 누구나 1질씩 소장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을 것입니다.

전4권 46배판 / 값 130,000원 / 500부 한정판 (각권 570쪽, 2도 인쇄, 고급양장제본, 케이스 있음)

도서출판 民族社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02)732-2403~4

밀교와 현교는 이렇게 다르다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즉신성불을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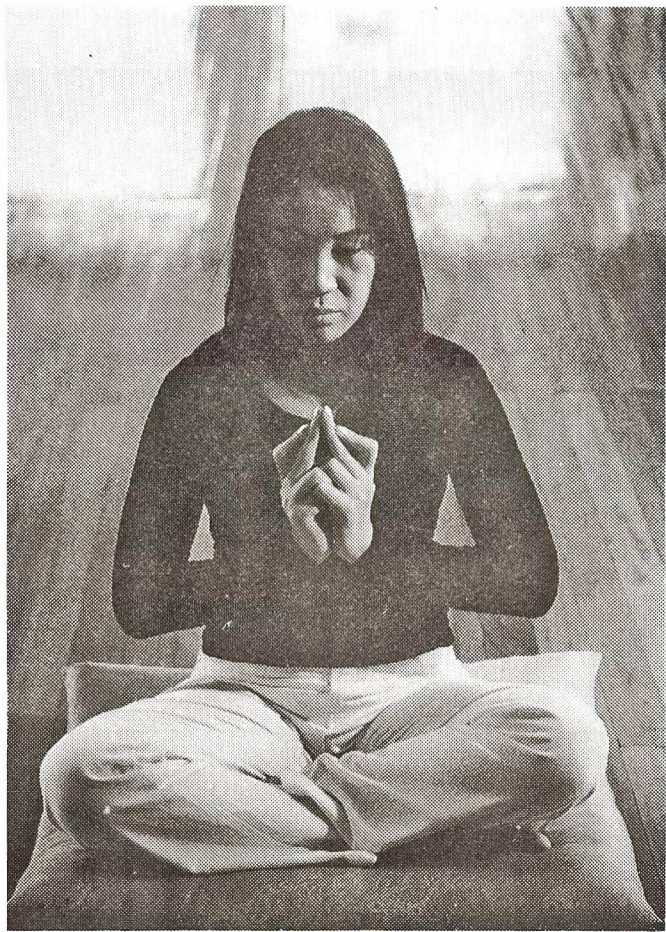
불교를 크게 나누어 현교와 밀교의 둘로 나눌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서 이해가 쉬우며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설한 가르침을 현교라 하며 밀교는 여래의 내증법문(內證法門)을 설한 비밀심오한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밀교와 현교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고찰해 보는 것도 밀교의 뜻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주의 입장에서 보면 현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주로 하고 있으며 현로천략(顯露淺略)하다하여 현교라고 하고 밀교는 대일여래, 즉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하고 있으며 심오하고 신비하다고 밀교라 한다.

둘째에는 현교는 응화신인 석존의 설이며 밀교는 법신불인 비로자나부처님의 설인 것이다. 즉 응화불 석존이 근기심전(根機深淺)에 따라 설하신 방편의 교를 현교라 하고, 이에 대하여 법신불인 대일여래가 근기의 여하를 가리지 않고 방편을 쓰지 않으며 여래자중(如來自證)의 경지를 있는 그대로 개설하신 것이 밀교인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볼 때 하나는 설법, 하나는 중법인 것이다. 현교는 수타의설(隨他意說)이며, 방편으로서 과분불가설(果分不可說) 부처님의 경지는 설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하였



삼밀관행은 밀교만의 수행법.

지만 밀교에서는 법신 대일여래가 여의진실어로서 부처님의 경지를 개설한 삼비(深秘)의 교인 것이다.

셋째, 성불(成佛)의 지속(遲速)인 것이다. 즉 얼마나 빨리 성불에 이를

이나 하는 것인데 바로 근본적인 현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밀교에서는 삼밀가지(三密加持)의 수행을 통하여 여래의 진실의를 깨달으면 지금의 이름 이대로도 즉신성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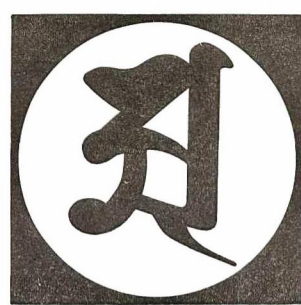
이 가능하다고 설하고 있지만 현교에서는 삼대무수겁 아승지겁을 거쳐 거의 무한정한 시간을 통한 수행을 거쳐야 겨우 무상보리를 증득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소위 삼검성불설로서 현교의 성불관이다. 삼밀가지란 佛과 내가 일체가 되어 가지감응하며 佛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佛에 들어가(入我我入) 일체로 된다고 하는 밀교의 독특한 수행방법이다. 그 밖에도 밀교에서는 수법(修法)이라든가 관법을 중시하여 아자관(阿字觀), 월륜관(月輪觀) 등 여러 가지의 수행방법이 있다.

끝으로 밀교는 불가사의한 공력을 지닌 진언다라니(眞言陀羅尼)로서 조직된 종교이다. 다라니란 총지(總持)라고도 하며 한량없이 깊고 많은 뜻을 지니고 기억하여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이를 지니므로서 갖가지 선법을 지닐 수 있으므로 능지(能持)라고 하고 갖가지 악법을 막아주고 물리치므로 능차(能遮)라고도 한다. 대일경, 금강경, 대이취유 바라밀다경, 수호국제다라니경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법신의 설법인 진언다라니는 불가사의한 공력을 지닌 최승의 다라니문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생 모두가 소망한 무한 가능성을 지닌 불성을 증득할 수 있는 바라밀다인 것이다.

밀교의 요체 정보리심관

(월륜관·아자관)

밀교에서는 관법을 매우 중시하는데 이 관(觀)이란 것은 관시(觀視) 관찰(觀察)의 뜻으로서 모든 법의 상(相)을 분별하여 비추어 봄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보리심을 자각하는 방법으로서 정보리심관(淨菩提心觀)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월륜관(月輪觀)과 아자관(阿字觀)이 있다. 월륜관은 우리의 정보리심은 청정결백하여 마치 동근 달과 같다고 관하는 관법이다. 이 관법을 행하는 데는 먼저 월륜본존도라 하여 흑색 바탕을 배경으로 둥글고 밝은 달을 그린 그림을 걸어 놓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월륜을 그려도 된다. 월륜은 곧 보리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관을 하기 위해서 먼저 조용한



아자관은 보리심의 상징

곳에 앉아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가다듬는다. 호흡은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내밀고 내쉬면서 가슴을 내미는 소위 복식호흡이 좋다. 그러면서 눈을 반쯤 감고 정신을 통일하여 마음을 청정하게하여 월륜을 관

한다. 즉 앞에 있는 월륜본존도를 응시하거나 이마 위에 월륜이 있다고 상상한다. 그렇게 깊이 삼매에 들면 청정된 눈은 반쯤 감고 정신을 통일하여 마음을 청정하게하여 월륜을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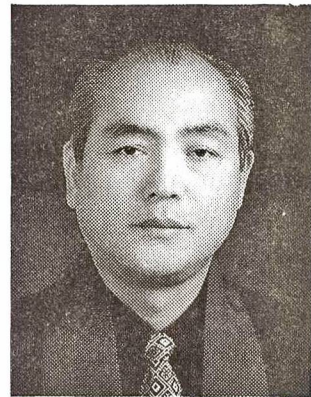
매개로 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에 정보리심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자관이라는 것은 법자인 아자를 관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본래부터 정보리심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방법이다. 아자는 모든 음의 근원이라고 생각되어 이로부터 철학적으로도 제일원리 또는 우주의 근본으로 상징되고 대일여래 또는 보리심으로 상징되게 되었다. 이 아자관을 수행함에는 앞의 월륜관에서처럼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여 아자본존도를 응시한다.

아자본존도는 월륜속에 연화대가 있고 그 위에 아자가 그려져 있는 것인데 아자와 연화, 월륜이 모두 보리심을 상징한다. 본존도가 없으면 마음으로 상상하여도 무방하다. 이 아자로서 상징되는 정보리심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진실이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법은 가장 기본적인 밀교의 관법이며 누구나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수행법이다.

육바라밀 실천과 생활화



법공 (총지사주교 통리원장)

좋은결과 되는육행 단시불공 정제불공 안인불공 정진불공 정려불공 지혜불공 이육행을 실천하여 저안락에 이르른다

세간사람 누구라도 간담하는 마음있고 악독스런 마음있고 성을내는 마음있고 게을리는 마음있고 어지러운 마음있고 어리석은 마음있고 계박되고 전도되니

단시로서 도탐하고 인색함을 다스리고 정제로서 추잡하고 악마행동 다스리고 안인으로 성을내고 원수짐을 다스리고 정진으로 게을하고 방일함을 다스리고 정려로서 어지러운 허망분비 다스리고 지혜로서 어리석고 미련함을 다스리면 모든고통 물러가고 구경해탈 되느니라.

- 조조법설집 -

수 있다했습니다. 바라밀이란 다 아시다시피 '도피안(到彼岸)' 즉 저 언덕에 도달한다는 말로 고통의 '이 언덕'에서 열반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저 언덕이란 만족과 안락이 보장된 우리 모든 중생들의 영원한 이상향인 것입니다.

열반을 자칫 '죽음' 또는 죽은 뒤에 가는 극락세계 등으로만 생각하는 이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열반의 뜻은 깊고 넓어서 언설로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전(生前)이나 사후(死後) 어느 한 쪽에만 국한된 것이 없고 깊고 넓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령- 불만과 고통을 '이 언덕' 이라고 한다면 만족과 안락은 '저 언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서원을 '이 언덕' 이라면 '성취'는 저 언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총지중에서는 육바라밀을 교리적인 이론보다 실천행에 무게를 두어 주로 육행(六行) 또는 육행 실천 등으로 즐겨 씁니다. 그럼 육행 실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바라밀입니다.

(육행지중에서 행단이 위수(六行之中 行檀爲首))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바라밀중에 보시바라밀을 맨 먼저 행해야 할 순서로 보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이 처음 보시 바라밀로부터 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순으로 차례로 된 것도 깊은 뜻이 담겨진 순서라 하였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중생의 탐을 벗지 못함도 따져보면 무시관공으로부터 지어오는 탐진치 삼독업 때문입니다. 삼독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중생탈도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독업 중에서도 탐업이 그 머리가 되는 것이니 먼저 탐심부터 소멸시켜야 함

대승불교의 수행은 육바라밀 실천에서 보시행으로 탐심의 소멸을

대승불교(大乘佛敎)의 수행요체(修行要諦)는 뭐니뭐니해도 역시 육바라밀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불교(生活佛敎)를 표방(標榜)하는 우리 총지중의 수행요점 또한 소의경전의 하나인 대승이취 육바라밀다경에 의한 육바라밀 실천과 생활화에 있다 하였습니다.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권 제4에 (중생을 제도하고 육바라밀을 수행해야 무상보리를 증득함을 설함)에 그때에 박가법께서 자씨보살마하살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오취(五趣)의 중생을 인도하여 무상정등보리에 들지니라. 외도의 사된법과 악지식을 원리하고 마땅히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를 친근하여 수행할 것이며 구족하게 대승을 수행하는 자를 반대로 삼고 자신에 있어서도 정법을 듣고 부지런히 외어 지닐지니라.

환상 이와 같이 여섯가지 바라밀다에 안주하여 정진 수행하고 마음과 뜻을 항복 받아서 육근을 심호(攝護)할 지니라. 이 세력으로 말미암아 속히 무상정등보리를 증득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라고 하느니라) 이상과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육바라밀을 수행해야 속히 무상보리를 증득할

이 당연한 순서로 탐업을 녹이는 데는 보시행이 최상의 양안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행에도 또 세 종류가 있으니 소위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가 그것입니다. 이 삼종시를 또 행할 순서대로 말한다면 재시(財施)가 먼저입니다. 재물이란 인생살이에서 매우 소중한 것으로 재화를 우리몸에 비유한다면 피와 살과 같아서 부족하거나 없게되면 당장 생명의 유지가 어렵듯이 그래서 모두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다생경으로 물질에 집착과 탐욕을 자꾸 쌓아서 탐업이 가장 무거운 중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탐심 때문에 온갖 죄업을 짓게 되고 또한 선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장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풀어 널리 보시행을 함으로써 속세의 탐업을 녹이고 아울러 큰 복업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지중의 교도들은 입교와 동시에 먼저 쉽고 가까운 단시행(檀施)부터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저녁으로 밥을 지을 때 식구 수 만큼 쌀 한 술씩을 먼저 뜨는 절량 회사와 날마다 정시(定施)하는 법 등이 그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밀교의 세계

다문화·지구촌시대를 맞아 새롭게 탐구하는 불도의 비밀스러운 가르침, 밀교! 신비스러운 밀교의 세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밀교 개론서!

Tantric Buddhism

불교사상 극치에 이른 가르침이자, 인류 지혜의 열매로 일컬어지는 밀교에 대한 새로운 탐구! 시대와 장소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문화요소를 수용, 승화시켜 나간 대승불교의 전 역사를 통해 본 밀교란 무엇인가! 새롭게 정리한 밀교의 성립과 발전 과정, 그리고 오묘한 진리의 세계를 통해 멋진 인생 철학을 얻는다!

*신국판/368면/값 8,000원 *사점에 있습니다

정태혁 지음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태고종림 동방불교대학 학장으로 있으며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 《법어학》 《철학사》 《부도의 호흡과 명상》 외 다수가 있다.

고려원출판부: (733)7451-5
전화: (739)7741-5

박동환 지음

동양의 논리는 어디에 있는가

서양정신과 동양정신의 사유체계에 대한 논리적 해석!

*신국판/336면/값 6,500원

김용운 지음

흙에서空的 세계로

수학과 불교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유의 재적!

*신국판/272면(화보 포함)/값 6,000원

동봉스님이 풀어 쓴 불교설화①

부처를 버리고 부처를 찾는다

설화 속에 나타난 중생들에게 열린 깨달음의 경지!

*신국판/344면/값 5,500원

동봉스님이 풀어 쓴 불교설화②

마음 그대로가 부처인 것을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얻는 세상을 보는 지혜!

*신국판/328면/값 5,500원

김상현 지음

역사로 읽는 원효

새롭게 만나는 독창적이고 실천적 사상가로서의 원효!

*신국판/352면/값 6,800원

정승스님 지음

해는 서에서 東으로 온다

변모해 가는 오늘날의 여성들에게 전하는 한국의 여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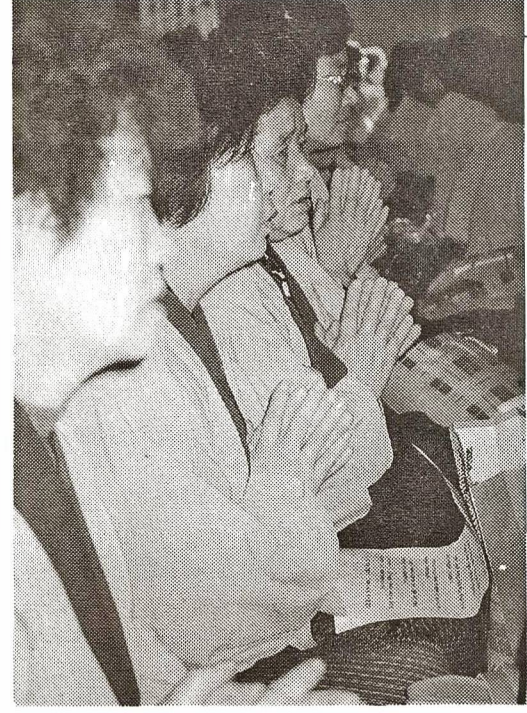
*신국판/232면/값 5,500원

교화영험담

이남이(수인사)

수인사에 다닌지가 1년 남짓 된 것 같다. 동서의 권유로 밀교와 만나게 되어 영송하는 법부터 배워서 하니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종교를 갖게되어 마음에 위안을 얻고자 열심히 영송하면서 월초불공과 자성일을 지키며 나름대로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수인사에 다니게 된 동기는 시어머님과 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이다. 두 사람이 아프니 가정에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다. 시어머님은 암으로 투병 중이시고 딸아이는 파부병으로 수 년간 치료를 받아왔지만 잘 낫지 않았다. 결혼한 뒤 별일 없이 잘 지내 왔는데 근래와서 몇 년 동안 가족의 건강상

잡다하고 있으며 딸의 병도 완쾌되어 너무나 기쁘다. 건강 때문에 1년 휴학 한 뒤에 올 해에야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 해에는 시조 부모님을 위해서 49일 불공을 해드렸다. 초심자가 4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영송하러 다닌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드는 일이지만 직장에 매인 몸이라도 틈나는대로 서원당에 와서 조부모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송을 지심으로 하게 되었다. 49일 불공을 못해드려서 조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불공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개운했다. 불공을 열심히 했던 까닭인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



지극한 정성은 어떠한 난관도 극복한다.

태가 좋지 않아서 식구들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절망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열심히 영송하면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해 딸이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도 증세가 심한 상태였는데 불공을 열심히 한 뒤에는 치료성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 부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불공을 하게 되었다. 시어머님도 많이 회복 되셔서 지금은 절에 함께 다녀서 더욱 기쁘시다. 친정 어머니도 열심히 영송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영송하는 일로 보내셨다. 가정에 믿음이 없을 때는 좌절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짜증내기가 일쑤였다. 그렇지만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마음을 달래서 시간만 허락 하면은 서원당에서 영송을 열심히 했다. 나는, 특히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정사님 설법을 들으면 귀절귀절이 가슴에 와 닿고 수행하는 것이 고행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님과 일요일이 되면 절에 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족의 협조로 지장암이

했다. 잘 안 팔리던 집이 뜻밖에 팔려서 지금은 너른 집에서 가족들이 즐겨워 하는 모습을 보면 다 부처님 가피력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들 병간호를 함께 하다보니 정작 내 일은 잘 못해냈다. 어머니와 딸아이의 병이 나은 뒤에 나는 승진 고시를 보기로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영송도 함께 열심히 했다. 나이가 많고 주부라서 공부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최대한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정신해 나갔다. 흔들리면 스승님을 뵈고 바른 길을 묻기도 했다. 시험일을 두어달 앞두고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불공에 들어갔고 공부도 암기위주보다는 이해위주로 해나갔다. 드디어 시험보는 날, 열심히 불공도 했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서 별 걱정없었지만 5과목 가운데 한 과목만이 아슬아슬해서 걱정이었다. 걱정하는 마음과는 달리 시험에 합격하여 매우 기쁘다. 흔들릴 때마다 힘이 되어주시는 사님, 전수님과 동료들께도 감사사를 드린다.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내 삶은 많이 바뀌었다. 더 열심히 불공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린이 포교의 요람 자성학교

김혜경

봄 햇살이 눈부신 절 마당을 뛰어다니는 어린이 불자들을 보는 마음은 흐뭇하다.

우리 총지중이 어린이 학교인 자성학교(自省學校)를 운영한지도 벌써 이십여년이 넘었고 그 자성 학교 어린이들이 자라서 신심 있는 보살이 되고, 불교계의 튼실한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면 어린이 때에 심어진 불심은 평생을 간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의 본성을 찾자는 뜻의 자성학교는 오랫동안 어린이들의 불심을 돌보는 장소로, 놀이터로 공부방으로 활용되어 왔다. 보살님들이 법회를 잘 보시도록 아이들을 유아실에서 데리고 노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공식불공시간을 다 지키고 불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데도 있다. 그곳은 대개 주교의 각별한 관심과 어린이 포교에 관심 있는 몇몇 청년 불자들에게 의해서이다. 자성학교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었고 선생님도 많은 곳이 당연히 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선생님이 마음만 있고 실천을 못할 만큼 자성학교의 운영여건이 열악하다. 어디든 다 그렇겠지만 선생님의 신심도 날로달로 떨어져 젊은 선생님들을 구하기도 힘이 든다. 당연히 자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자라서 다시 자성학교 선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성학교가 없는 곳의 사원은 결국 신도마저 적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자성학교에 나오는 어린이 들은 교도들의 자녀들이 많지만 요즘은 포교되어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총지중 자성학교도 재미있는 교리 공부와 노래, 율동 등 다



미래의 불자 양성을 위하여 어린이 포교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채롭게 구성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포교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밀교 종단인 우리 총지중을 이해하고 부모님까지도 포교해 오는 경우도 있다. 밀교 종단이라 하면 언론의 바르지 않는 홍보로 비밀스럽고 타락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성학교가 개설되어 있는 곳의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밀교를 이해한다. 어른이 되었을 때 밀교를 만나면 먼저 거부 반응을 보이지만 어린이들은 그대로 받아 들이고 그런 의심을 갖는 어른들의 곱지않은 눈도 씻어 주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먼 미래를 봐서도 지금 포교로 봐서도 자성학교 개설은 아주 좋은 일인데 왜 자성학교가 없는 사원이 많은 것일까? 왜 있는 곳도 포교가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일까.

먼저 빈곤의 악순환을 하는 까닭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는 데 첫째 문제가 된다. 주교의 재량에 맡겨 놓아서 자성학교가 없는 곳도 있고, 자성학교가 있는 곳의 선생들은 적절한 교재가 없다는 데 힘겨움을 느낀다고 한다. 선생 혼자 힘으로는 밀교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밀교를 잘못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한다. 종단에서 만든 교육적인 프로그램과 더불어 선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든지,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성학교 교재가 시급하다.

다른 종단에서는 해마다 어린이 학교 개설을 위한 지도자 연수회가 있지만 우리 종단에는 없어서 다른 종단에서 발간하는 자료로 공부하고

생님이 바뀌고 그래서 종교적인 심성이 길러지지 않은 아이들은 쉽게 만나는 다른 종교의 어린이 학교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셋째, 포교의 방법에서의 문제이다. 다른 종교의 어린이 학교 선생님들은 토요일, 학교 앞에서 자기종교를 선전하고 어린이 학교에 오면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어떤 놀이를 많이 한다고 하기도 하고 무상으로 과자며 자기 교회이름이 적힌 화용품을 나눠주기도 하여 지명도를 높인다고 한다. 그렇게 호기심을 자극하여 한 번 오게되면 아이들의 집까지 찾아가 그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우리는 인연법에 매여서 적극적이지 않다. 오는 어린이들조차도 돈이 부족해서, 데리러 갈 차가 없어서, 재미있는 놀이 기구가 없어서, 몇 번 나오다가 호지부지 되고 그렇게 끝나면 그런가보다 하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포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성학교 개설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까닭은 몇 안 되는 자성학교 선생들이지만 열악한 조건에서도 신심 하나로 열심히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서이다.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 다니며 나름대로 교재를 만들어 쓰면서까지 곳곳에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총지중의 온 사원에서 햇살같은 어린이들의 웃음이 넘쳐나게 하겠다는 선생들의 서원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자성학교 어린이들이 사원에서 뛰어 놀아도 화내지 않고 그런 것을 오히려 기뻐해주는 사소한 것도 힘들어 하는 선생님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성학교 선생들은 종단과 전국 사원의 스승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일상에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국에 계시는 교도 여러분을 한 해에도 더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제해탈과 각자님의 무능력을 탈피해보려고 1980년에 정각사에 입교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다른 교도들처럼 방정진을 한번 해보아겠다고 생각하고 영송을 하는데 이날까지 생각지도 못한 저의 전생을 남편으로 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정말 골수에서 나오는 참회의 눈물을 한참 흘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 각자님 손을 잡고 "내 잘못했소" 하고 참회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큰 절로 참회하고 자식들한테도 원만한 마음을

참회하고나니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지요. 현재의 업보 소멸이 남아 있어서 괴롭기는 하였지만 우리 가족들은 생활을 불공으로 맞추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날도 절에 갔다가 집에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각자님이

나, 서지도 않지도 늘지도 못하고 움직일 때에도 기다시피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큰 서원을 세웠더니 그나마 후세에 받을 축복과 보를 지금 현재에서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자

지요. 전생이 있기에 현세가 있고 현세가 있기에 미래세는 기약이 되기에 이삼세 어느 것 하나라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통밀교 총지중에서 더욱더 절절히 배워 나가고 있지요.

어떠한 생명체도 비로자나부처님의 품을 벗어난 생명체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공간 속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느 인연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았을 때 어떤 집착도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 평생 살면서 애육에 얽힌 모든 번뇌 망상을 깨끗이 끊고 평등해질 때 극락세계로 가게되고 해탈을 하게 되어 부처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지 못하면 육도 윤회를 할 것이고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영송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총지중 교도들은 이 몸이 대로 성불하여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정각사 박경자)

인과의 이치를 깨치던 그날 모든 생명체는 비로자나불의 품안에

병원에 실려갔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이던 각자님은 아파트 변압기에 감전 화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죽지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일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처님 가피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남편의 병간호와 불공을 동시에 하게되었습

어서 맛보음을 저희들 삶속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의 각자님이 할 일이 별로 없었을 때 넷가에서 전기선을 물에 넣고 그 충격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아주 맛있게 먹었지요. 그 과보를 정확하게 받은 것이

각자님이 퇴원을 하고 각자님 일을 제가 하면서 저는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수화공공식을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영송과 생활에서 느끼는 것으로 알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 진리를 진언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

정각사·지인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교총지중 부산·경남교구장의 강 합장

정각사·지인사 현공을 봉축합니다



불교총지중 대구·경북교구장의 수 성 합장

총지도량 순례

밀법홍포의 실천장 密印寺

화목과 정진으로 다져진 서울의 중심도량

우리 총지중은 창종 당시부터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며 도심 속의 수행공간을 이룩해 왔다. 다른 종단들이 산중불교에 집착하고 있을 때 우리 총지중은 생활과 밀접한 삶이 있는 불교의 향포를 위하여 도심가운데에 부처님의 전당을 건설하고 대중들과 함께 해왔다.

그러한 수행도량이 바로 밀인사(密印寺)이다. 동대문 로터리를 지나 신설동 쪽으로 가다보면 왼쪽 낙산 언덕에 원만무애의 상징인 구상(球相)이 보이는데 여기서 곧 총지중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밀인사이다. 밀인(密印)이란 비밀인계(秘密印契)란 뜻으로 밀교의 독특한 인계가 심오하고 비밀스럽다하여 밀(密)이라는 관사를 붙인 것이다. 인계는 인도 말로 무드라라고 하는데 인장(印章)처럼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는 뜻으로 밀교에서는 불·보살의 깨달은 경지 내지는 서원·공덕·법계등의 상징으로 쓰이며 좁은 의미로는 결인(結印)·수인(手印)을 지칭한다. 이 밀인사라는 뜻에는 밀교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대문 로터리를 조금 지나 주력가를 끼고 조금 들어가면 바로 이 밀인사가 나타나는데 흔히 동대문이라고 하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종로구 송인동이다. 서울의 중심이라 우리나라의 중심이라 할 만한 유서깊은 지역이다. 여기에 우리 밀교사원이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큰 자랑거리이다. 이 밀인사가 지금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기 까지는 개설당시부터 밀인사 주교로서 교화에 전념하신 법장화(法藏華) 전수님의 법력과 동대문 교도들의 굳건한 신심이 바탕이 되었다. 처음 밀인사가 개설된 때는 총기 원년인 1972년 11월 28일 아직 총지중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한달 전이었다. 동대문근처의 상가아파트 한채를 세내어 본존인 육자진언 음마니반메춤을 봉안하고 설단불사를 올리므로써 오늘의 밀인사가 태동하게 된 것이다. 이듬해 9월에는 송인동 274번지에 건물을 매입하여 불단을 이설하고 시중포교에 더욱 주력하였으며 총기 4년 즉 1975년에 밀인사로 정식 명명되어 서울의 중심사원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총기 8년에 지금의 밀인사 자리인 송인동 72번지의 한옥을 매입하여 사원 건



법장화 전수

물로 사용했다.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다가 총기14년인 1985년 드디어 신축 공사에 착수, 이듬해 10월 20일 현공불사를 올리고 오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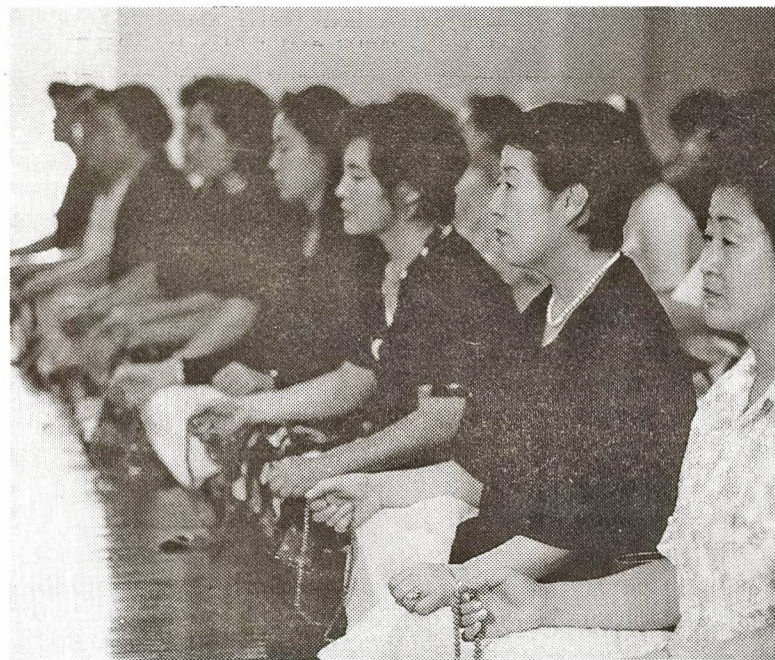
△도심속의 수행공간 밀인사

법장화 전수의 법력으로 꾸준히 발전 새로운 전기 맞은 밀인사 거듭나기를

밀인사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서울의 중심도량이며 총지중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 온 밀인사를 얘기하면서 25년이나 밀인사를 지켜오신 법장화 전수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법장화 전수님은 창종 이전부터 원정 조종님을 보필하여 총지중의 창종사업에 진력하였으며 밀인사의 전신인 동대문 선교부의 주교로 부임한 이래 25년동안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수행과 정열적인 교화로 밀교의 대아사리 자락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수행자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강직하고 청렴하며 부지런히 정진하시는 모습은 밀인사 교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어떤 보살은 법장화 전수님의 이러한 모습과 어머니같은 자상함에 이끌려 20여년을 한결같이 밀인사에만 다니게 되었다고 했다. 법문시에는 항상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시면서 부처님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바로 내 가족이 부처다 생각하고 정성껏 대하면 가정이 화

목하고 거기에서 모든 행복이 싹트는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가족을 대하는 데서 하심하는 마음이 길러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처어 원만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진언행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종단의 여러 행사에도 발벗고 앞장서는 분들이 밀인사 보살님들이다. 교양강좌, 합창단, 교전무용, 불우이웃돕기등 여러 가지



△밀인사 교도들은 화목과 실천을 으뜸으로 삼는다



밀인사의 새사대를 열기 위해 법장화 전수님과 원승정사.

불교설화

은혜를 잊은 사람의 과보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사는 동산에는 왕비가 살고 있었다. 그 부인은 어찌된 일인지 간밤에 꿈이 아주 잘 맞았다. 또 그 나라에는 언제부 터인지 금빛 사슴왕이 한 마리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원수와 강가에서 싸우다가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강물에 던져버렸다.

“자, 저기를 봐요. 저 빛나는 사슴의 모습을... 저것이 임금님이 찾으시는 사슴입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강물에 떠내려 가면서 이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한참을 떠내려 가는데 그 강가에서 물을 마시던 금빛 사슴왕이 그것을 보았다. 사슴왕은 거센 물살을 헤치고 들어가 간신히 그 사람을 구해내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어 평생으로 갚겠습니다.”

“내게는 종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나를 보았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시시오. 그것이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예? 예, 평생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슴왕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산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꿈에 왕비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금빛 사슴이었는데 어쩌나 아름다운 꿈이 깨어서도 그 금빛 사슴이 눈앞에 어른거리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참을 수 없어서 왕비는 어젯밤에 꿈 그 사슴을 잡아달라고 왕에게 부탁했다. 왕비의 꿈은 너무나 잘 맞아 두 말 없이 왕은 온 나라에다 그 금빛 사슴을 잡아나오는 곳을 말하면 한 살리 거뜨히 주겠다고 말했다.

돈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금빛 사슴을 찾기위해 온 산을 다 뒤졌지만 찾은 수가 있어가지, 다들 금빛 사슴은 왕비의 꿈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왕을 찾아왔다.

며칠동안 생각하고 생각해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슴왕과의 약속보다는 당장 돈에 욕심이 났다. 그 돈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왕에게 금빛사슴이 있는 곳을 알려 주게 말했다. 왕은 활 잘 쏘는 사람만

안한 느낌이 든다고 하면서 더욱 좋게 앞으로 앞장서며 모범을 보이는 밀인사 신정회가 이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25년동안 밀인사를 지켜오신 법장화 전수님은 고행으로 기로원에 진원하시고 이제 인법계(印法界)전수님이 주교로서 원승 정사님과 함께 밀인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밀인사 교도들에 의하면 젊은 전수정사님이 오셔서 한결 생기있고 든든하며 편안한

안한 느낌이 든다고 하면서 더욱 좋게 앞으로 앞장서며 모범을 보이는 밀인사 신정회가 이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25년동안 밀인사를 지켜오신 법장화 전수님은 고행으로 기로원에 진원하시고 이제 인법계(印法界)전수님이 주교로서 원승 정사님과 함께 밀인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밀인사 교도들에 의하면 젊은 전수정사님이 오셔서 한결 생기있고 든든하며 편안한

정각사·지인사 헌공을 봉축합니다



불교총지중 경인교구장
경 관 합장

정각사·지인사의 무궁발전 사바하



불교총지중 충청·전라교구장
법 수 원 합장

밀교의 불보살①

자비의 화신 관세음 보살



밀교의 세계에는 비로자나불을 위시하여 수많은 불보살이 있지만 특히 우리의 친숙한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다. 비로자나부처님의 또다른 모습으로 화현하신 것이 관세음보살, 혹은 관자재보살인데 한없이 자비로운 어머니의 이미지로 우리의 고통을 덜어준다.

관세음이란 대자대비(大慈大悲)를 근본 서원으로 하는 보살의 명호로서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이라고도 한다. 경(經)에 의하면 사바세계의 중생이 괴로울 때 그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그 응성을 듣고 구제해주신다고 해서 관세음이라 부르며 지혜를 관조(觀照)하므로 자재(自在)한 묘과(妙果)를 증득했다는 뜻으로 관자재라 한다.

밀교종단인 우리 총지중에서는 단순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의 본심미묘진언(本心微妙眞言)이며 진언 중의 으뜸인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 「음마니반메흠」을 밀교의 의궤(儀軌)에 따라 염송(念誦)하므로서 차원 높은 수행법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친숙한 준제관음(準提觀音)은 칠구지불모준제대보살(七俱佛母準提大菩薩)이라고도 하며 세 개의 눈과 열여덟개의 팔(三目十八臂)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무한한 지혜와 중생구제의 방편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상징한다.

준제대다라니경(準提大陀羅尼經) 등에 의하면 준제다라니인 「나무 사다남 삼막삼맛다 구치남 단나타 음자래주래준제 사바하」를 염송하면 일체의 죄업을 소멸하고 수복(壽福)과 지혜가 늘어나며 모든 불보살이 보호하여 세세생생 악도(惡道)에 떨어지지 않으며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증득한다고 하여 그 공덕이 무량함을 설하고 있다.

이런불자

날마다 새롭게 - 심지행 보살

한결같은 믿음으로 마음밭 일구어



을까? 혼자서 불공에 몰두하며 그 슬픔들을 차근차근 삭여내었다고 한다. 그때가 81년이었는데 서에도 그 무렵에 시작했다고 한다. 선이 넘어 배운 서예로 한국서예가총연맹이 주최한 제1회 한국서예대전에서 추사체로 당당히 입선했는데 심지행이라는 불명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나이를 극복하고 끊임없는 정진을 계속하는 참불자의 모습이 여기에서도 보인다. 생활과 불교를 하나로 하여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착실히 걸어가는 심지행 보살.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생활신조이며 이 생에서 밀교를 만난 것이 너무나 큰 다행이라고

밀교를 만난 것은 이 생의 영광

뒤늦게 배운 글씨로 서예대전 입선

깊은 불심으로 나이도 잊은 채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참불자가 여기에 있다. 총지사의 장수복(張水福, 67세) 보살이 바로 그분이다. 고 희를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수줍음과 애틀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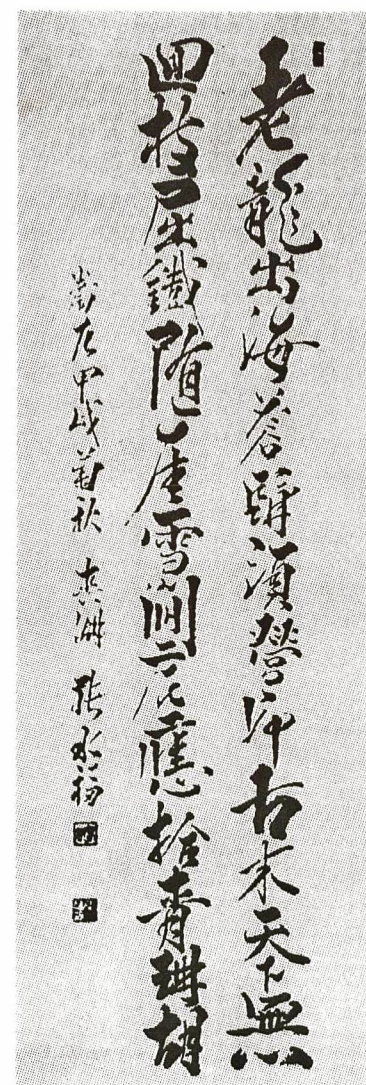
그 수많은 날들을 불공하는 정성으로 차곡차곡 다지며 살아온 장보살의 이력을 그 밝은 얼굴에서 보기는 듯하다. 요즘은 서예지도와 한창 연습, 그리고 뒤늦게 재미붙인 고전 무용을 배우느라 절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다. 그렇게 활기찬 삶을 살아서일까? 동료 보살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전보다도 얼굴이 더 피어나는 것 같다고 한다. 장수복 보살의 불명은 심지행(心地行). 20년전에 원정종조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끝없는 보살행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심지행 보살의 삶에서도 모든 파란을 말없이 이겨내고 언제나 밝은 얼굴로 마음밭을 일구어 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지행보살은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인동 장씨 가문에 태어 났다. 경주가 원래 우리 나라 불교의 산실이랄 할 정도로 도처에 절이 널려 있고 가는 곳마다 불상이요 불교적 색채가 짙은 고장이라서 심지행 보살도 너댓살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백을사에 따라 다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밀교와도 비교적 쉽게 인연이 맺어졌는데 평생토록 정신적 지주가 되어 온 밀교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반세기가 가까워 온다고

한다. 보살이 스무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친구 한사람이 정신이상이라 주 심했는데 '음마니반메흠'을 염송하고 완치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밀교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정진한 결과 여러 가지 법문을 보게되고 진리가 체득되면서 이제는 성불의 그날까지 종지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그때 읽던 경전 중에서 옥야경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아 눈물이 흐르고 감격스러웠다고 하는데 지금도 팔에게 하심하고 순종할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가르친다고 한다.

그렇게 맺어진 밀법으로 불심을 가슴에 품고 처녀시절을 가꾸어 가고 있었는데 서울에 놀러와서 친구 하숙집에 갔더니 옆방에 잘 생긴 총각이 살고 있더라. 그 분이 남편이 된 각자님인데 그 당시에 내무부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어찌 부처님이 정해주는 인연일까 쉽사리 혼인이 되고 이후 4남매를 낳고 큰 딸 없이 잘 살았는데 말씀이야 가련지만 살다보면 어찌 어려운 일이 없었겠는가? 늘 '음마니반메흠'을 의지삼아 부지런히 절에 다니며 마음을 조심스레 살피고 다독거리 살아왔기에 모든 고비를 무난히 넘겼던 것 같다. 심지행 보살이 가장 어려웠을 때는 각자님이 돌아가셨을 때라고 한다. 15년전에 고혈압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때의 슬픔은 '음마니반메흠'이 아니었으면 정말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평생 지기가 먼저 떠나셨으니 그 슬픔이 오죽했

말하는 보살에게서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의 미소를 보는 듯 하다.



심지행 보살의 작품

고전무용강좌 개설 총지사에서

불자들을 위한 고전무용강좌가 3월부터 개설되었다. 총지중 신도회인 신정회 서울지부 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개설된 이 강좌는 매주 수요일 11시에서 12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에 걸쳐 역삼동 본산내 법장원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회비는 무료이며 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지도 강사는 한국무용으로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현재는 청음농악복지회관의 농아들을 지도하고 있는 조세일씨이다. 고전무용과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불자들은 아래로 문의바람. (02)552-1080

부처님 오신날 캐릭터 확정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부처님 오신날 캐릭터 아기부처님은 부처님의 상징인 복발과 미간 백호, 가사를 그려 넣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친근감을 주도록 동그란 눈과 밝게 웃는 모습에서 때론 지 않은 순수함을 느낀다.



전법의 해



자비실천의 千手, 千眼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21세기 한 마음통장 프로그램 개발!

통장이름을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찰·종단에서 통장이름을 정하여 은행에 신청하시면 불자께서도 사찰·종단에서 정한 통장과 동일한 이름의 통장으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세후이자의 20%를 사찰·종단에 기부!

불자께서 거래하시는 보통·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예금의 이자결산시마다 세후이자의 20%가 은행만의 부담으로 사찰·종단에 기부됩니다.

보너스금리 0.25%가 사찰·종단 제정을 쏙!

별도로 정한 예금·신탁과목에 대하여 은행에서 불자에게 지급하는 0.25% 보너스 금리가 불자께서 지정하신 사찰·종단의 계좌로 이자발생시마다 보시됩니다.

자비의 실천!

위와 같이 조성된 기금으로 「불우이웃돕기」, 「포교활동」, 「사찰불사」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세기 한 마음통장프로그램」이란 은행은 세후이자의 소정률, 불자는 은행에서 지급하는 보너스금리를 사찰·종단의 계좌로 기부(보시)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용 프로그램이다.

가 입 안 내

■ 가입대상

- ☆ 사찰·종단 또는 불자(관련 단체·회원 포함)
- ☆ 후원자(개인, 기업체 등 제한없음)

■ 통장의 구성

기본계좌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우대정기적금, 기업금전신탁
연결계좌	정기예금(일반, 복리식), 정기적금(일반), 가계우대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 개발신탁(확정), 꿈모아적립신탁(정기적립식), 노후생활연금신탁

■ 통장발급

- ☆ 사찰·종단의 단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사찰·종단에서 정한 통장과 동일한 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특별 서비스

■ 성지순례대출

성지순례대출이란 불자가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해외여행시 따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자격

- 이 통장에 가입한 불자로서 대출금액 이상의 연결적금(계약) 1회이상 불입자
- ★대출한도: 최고 5백만원 이내
- ★대출종류: 보증대출

■ 특별서비스

은행이 정한 일정기준 범위 내에서 은행과 사찰·종단은 별도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은 특별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 공지사항 회원통지서비스
- ★ 대여금고 무료이용 및 야간금고 설치
- ★ 통장의 디자인
- ★ ID카드 및 공익직불카드 발급 서비스
- ★ 사찰·종단의 특성에 따른 기타특별서비스도 제공하여 드립니다.

■ 자동계좌이체서비스

보시, 후원금, 각종회비, 기금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소속 사찰·종단의 계좌로 이체하여 드립니다.

통장명칭	불교총지중
단체번호	000223

☎ 위 번호를 다른 불자 및 후원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